

[ 일 시 : 2023. 2. 27.(월) 17:00 ]  
[ 장 소 : 대한장애인배구협회 회의실 ]

# 정기대의원총회 회 의 록



대한장애인배구협회

(개회 : 17시 00분)

## 1. 개회식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강수민입니다.

2023년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1. 국민의례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국민의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2. 성원보고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이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2023년 정기 대의원총회에 대면참석 7분, 비대면참석 3분으로 재적의원 18명 중 ( 10 명)이 참석하셨습니다.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전갑수 의장님께서 개회를 선언하시겠습니다.

### 3. 개회선언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사회자의 성원보고와 같이 정관 제18조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한장애인배구협회 2023년 정기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 4. 의장인사

###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바쁘신데 멀리 발걸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무국에서 며칠 전부터 계속 대의원들한테 총회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부재도 있었고, 멀리 와주신 분들에게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안건심의와 사무국 전체 보고를 받고요, 앞으로 대한장애인배구협회에서 다양한 방향에 대해 의견을 허물없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사무국장은 전차 총회 회의결과 등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전차 회의록 보고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전차 총회 초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 3. 2. 수요일 재적이사 17명중 12명 참가 비대면 줌회의 하셨습니다.

대의원님들의 심의안건 1건으로 2021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안) 심의  
원안의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제1차 이사회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오후 4시에  
의결하였습니다. 의결한 결과 2023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보고 받으신 전 회의록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 대의원전원 : 없습니다.

## 6. 심의안건

###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3건입니다.

첫 번째 심의안건으로

제1호 안건 2022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안) 심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자로부터 제안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제1호 안건 2022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심의 정관 제47조(예산편성 및 결산)에 의거하여 2022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을 확정하고자 본 안건을 부의하였습니다.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제1차 이사회 제2호 안건으로 2023년도 2월 21일에 의결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국가대표 훈련을 남.여자팀 이천훈련원 및 촌외훈련으로 실시하였으며
- 공모사업 지원 후보선수 훈련지원을 지원받아 100일간에 훈련을 감독 1명 선수 5명이 전국 지역을 돌아 다니며 훈련을 실시

### ○ 대의원 : 문기훈 제주장애인배구협회장

잠깐만요. 지금 회의자료 몇 페이지 입니까?



## 6. 심의안건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12페이지입니다. 앞에 먼저 해드려요?

○ 대의원 : 문기훈 제주장애인배구협회장

지금 보고사항을 예산안 보고가 5쪽에 있고 목차에서보면 심의안건 3개가 있는데 5쪽에 있는건 다끝나버린거네요? 아니, 목차에는 있는데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네 4페이지 맞네요 죄송합니다.

○ 대의원 : 문기훈 제주장애인배구협회장 전차회의록 말한 것 같은데, 사업계획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네 지금 사업계획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5페이지 죄송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다시 천천히 해보세요.

○ 위원장 : 유황규 충남장애인배구협회장 좀 천천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네, 잠깐만요.

○ 대의원 : 문기훈 제주장애인배구협회장 근데 목차를 보면, 심의안건 3개를

○ 대의원 : 윤종수 대구장애인배구협회장

국장님이 초록보고를 구두로만 쪽하고 페이지를 안찍고 넘어가고 그다음에 5페이지에 사업계획 안을 설명해주시고 넘어가서 밑에 칸에 심의안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 6. 심의안건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갑자기 심의안건으로 넘어가서요?
- 대의원 : 윤종수 대구장애인배구협회장 네네
- 대의원 : 문기훈 제주장애인배구협회장  
근데 지금 3쪽에 있는 결과를 이사회때의 심의안건 아닌가요?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네, 맞아요.
- 대의원 : 문기훈 제주장애인배구협회장 21년도 것 입니까?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21년도 사업결과요.
- 대의원 : 문기훈 제주장애인배구협회장 원래 제작년거를 원래 2월달에 이사회때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초록보고니까 저희가 대의원을  
앞에 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 대의원 : 문기훈 제주장애인배구협회장 아 앞에 이사회가 아니라?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그렇죠. 작년거를 보고하는 거  
라 22년도, 3/2날 했던 것을 보고 드린거거든요.

## 6. 심의안건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원래는 정관을 보면 대의원총회에서 구성과 기능이 2023년에 대한 사업계획 부분은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짓게 되어 있지 저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대의원 : 윤종수 대구장애인배구협회장 잠시만요. 이사회에서 하고 대의원에서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여기에는 사실 내용이 없어요. 결산에 대한 내용만 있는거지 사업계획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정관의 15조를 보시면 회의를 진행하는데 없는 내용을 가지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시면 장애인배구협회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과 시도지부 설치 및 제명, 전국규모연맹체 가맹과 제명, 임원의 선임 및 해임,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사실은 사업계획은 이사회에서 하게 정관에 있습니다. 오늘 이부분에서 결산에 대한 부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계획은 제가 이사회에서 하고 초록보고랑 같이 드리려고 말씀드린거예요.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사업계획과 같은 것을 논의하려면 2023년에 관한 것은 22년 11월에 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벌써 끝나버린 것을 가지고 추후보고하는 것이잖아요. 결산과 같은 부분은 1월 중에 하는 것이 맞고, 총회도 사실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 6. 심의안건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저희도 알거든요. 정산이 체육회에서 e나라라고 자체말고 국고에서 받은 것을 정산하고 결산을 하게 되어있어서요.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체육회에서 받았으면 결산보고 자체는 저희 통과한 다음에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결산을 논의하고 결과를 하게, 승인을 하게 되어있잖아요? 제가 알기론 1월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대의원 : 윤종수 대구장애인배구협회장

오늘 총회가 대의원총회니까. 이사회에서 (다른 대의원과 말이 겹쳐서 들리지 않음)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저희가 결산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대의원 총회에서는.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네, 심의하려고 뒤에 넣어놨어요. 결산을.

## 6. 심의안건

###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이렇게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무국이 사실 원활하게 직원들 배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대로 중간에 과장이 회계업무를 전담하여 근무를 하다가 중간에 사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는 기한을 둔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수발하다 보니 그때그때 타이밍을 놓친 것이 선수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이 다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제 책임 입니다만, 사실 1기 집행부 구성할 때 전무이사를 선임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실패했습니다. 전무이사가 정해져 회의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사무국에서는 보조를 하는 것이 맞는데 전무이사가 공석이다 보니 사무국장이 전무이사까지 대행해야하고, 과장의 업무까지 맡아 1인 3,4역을 하여 업무적으로 부하가 걸려있습니다. 또 사무국장도 협회에서 1년 남짓 업무를 추진하다보니 매끄럽게 진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다시 집행부를 구성했습니다. 오늘 대의원들의 승인을 받으면 올해부터는 원활하게 재정비하여 협회가 정상과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오늘 미흡하더라도 대의원분들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저는 발전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거고요. 사실은 대의원총회도 1년에 한번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이상은 해야지 협회가 돌아가는 상황도 알고, 사실은 이사회를 계속 치루고 있지만 대의원들은 이사회를 무슨 내용으로 하는지도 정확히 몰라요. 보통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것도 원안가결만 올라오는 거라서. 대의원이라는 것이 최고 상위기관이잖아요. 사실은 보고를 받는 부분이 맞긴 맞아요.

## 6. 심의안건

### ○ 대의원 : 윤종수 대구장애인배구협회장

대의원 총회를 하게 되면, 사전에 내용을 보내주고 검토해 올 수 있게끔 해주세요.

### ○ 대의원 : 문기훈 제주장애인배구협회장

정관에 원래 나와있어요. 제가 문제를 처음 받은 것이 2월20일날 받았고, 회의내용은 24일에 보내준다고 했는데, 회의자료가 안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오늘 와서 확인하니까 미리 받았으면 비교라도 하고 올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대장체 규약에 위배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장체 임원선임에 대한 것을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 ○ 대의원 : 장영희 광주장애인배구협회장

그래서 회장님께서 양해 말씀하신게 전무이사님도 공석이셨고, 다음부터 준비 잘해서 하면 되니까요.

### ○ 대의원 : 윤종수 대구장애인배구협회장

그냥 매끄럽게 넘어갑시다. 비대면 하다가 이제 대면으로 하니까요.

###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다시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차 총회 초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 3. 2. 수요일 재적이사 17명중 12명 참가 비대면 총회의 하셨습니다.

대의원님들의 심의안건 1건으로 2021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안) 심의 원안의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제1차 이사회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오후 4시에

## 6. 심의안건

의결하였습니다. 의결한 결과 2023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에 대해서는 첨부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보고받으신 건에 대해 의견이 없으셔서 일단 원안대로 접수 하였습니다. 6페이지 심의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대의원 : 문기훈 제주장애인배구협회장 잠깐만요. 6페이지 끝난건가요?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끝난게 아니고, 그냥 자료만 참조해달란거예요.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그러면 지금부터 상정안건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3건입니다.

첫 번째 심의안건으로

제1호 안건 2022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안) 심의」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사회자로부터 제안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6. 심의안건

###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제1호 안건 2022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 심의 정관 제47조(예산편성 및 결산)에 의거하여 2022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을 확정하고자 본 안건을 부의하였습니다.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제1차 이사회 제2호 안건으로 2023년도 2월 21일에 의결되었습니다.

주요사업내용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국가대표 훈련을 남.여자팀 이천훈련원 및 촌외훈련으로 실시하였으며
- 공모사업 지원 후보선수 훈련지원을 지원받아 100일간에 훈련을 감독 1명 선수 5명이 전국 지역을 돌아 다니며 훈련을 실시
- 공모사업 지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페퍼저축은행에서 지원받아 광주에서 페퍼저축은행컵 전국 어울림 한마당 좌식 배구대회를 성대하게 치렀으며
- 장애인실업팀 지원사업 또한 특별한 성과는 내지 못하였으나 선수훈련 지원에 힘썼습니다.
- 제1회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배 전국좌식배구대회가 강원도 인제군에서 개최되었으며, 제4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제15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및 제15회 천안시장기전국좌식배구대회, 제21회 땅끝공룡기 전국좌식배구대회, 2022년 전국지적장애인배구대회를 지원하였습니다.
- 상임심판 운영 사업 1명 상임심판 추천 지원받아 2월부터 12월까지 국내대회 및 교육(연구활동) 등에서 활동하였습니다.
- 국제등급분류 파견을 지원받아 등급분류사님께서 해외(사라예보)에 직접 승급 과정을 이수하시고 국제등급분류 레벨1 에서 레벨2 자격증을 승급 하였습니다.
- 2021년 국고보조금 결산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회계사로부터 정산보고 완



## 6. 심의안건

료 하였고 대한장애인체육회 결산 및 정산 보고완료 하여 마무리하였습니다.

2022년 자부담 결산은 대한장애인배구협회의 회계감사로 계시는 심혁회계  
사님께서 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13페이지에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 12페이지부터 2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대한장애인배구협회 결산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결산에 대한 내용을 설명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중요한사항이라 설명  
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내용이요? 어떤 부분에서 다시 제가 설명드려야 할까요.

○ 대의원 : 윤종수 대구장애인배구협회장

이의있습니다. 앞으로 결산보고에 대해서 감사가 나와서 보고하는 것이 원칙입니  
다. 감사보고를 해줘야 하는데 우리 국장님이 보고를 하실 때 감사 결과보고만  
보라고 하니까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원래는 감사님이 오셔서 해주시는게 맞는데 보고서를 내주셔가지고

○ 대의원 : 윤종수 대구장애인배구협회장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6. 심의안건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감사는 감사보고만 받는걸로 알고 있고, 사실은 이런 내용들은 사무국장님이 다 하시거든요. 예산이나 결산에 같은 사항은 중요한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것만 보고서 왜 예산이 갑자기 늘었는지에 대해 파악이 어려워요. 어떤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예산을 반납했을 수도 있고, 추가로 잡혔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산서, 결산서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설명을 해주시는게 좋아요.

(다른 대의원들과 말이 겹쳐서 안들림)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나중에 표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감사가 한명인가요?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행정감사님하고 회계감사님 따로 있습니다.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제가 계속 말이 많아져서 죄송해요. 제가 왜 예산서를 계속 말씀드리냐면, 세입에 보면 후원금이 얼마 들어갔다고 되어있습니다. 지출이 후원금이에요. 말이 안되잖아요. 후원금을 어떻게 썼냐가 지출이거든요. 세입이라는 자체는 그 항목에다가 들어온 것을 기입하는 것이 맞고, 세출이라는 부분은 어디에 썼냐는 거예요. 인건비라는 것도 퇴직금, 사회보험등을 포함해서 확인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세입이랑 세출보면 항목은 똑같아요. 사실 후원금으로 물품을 샀다던가 내용이 있을거예요. 사실 그런 것들이 기입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 6. 심의안건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네, 제가 내년에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세입 부분, 후원 부분 나눠서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항목이라는 것을 정해놓는 이유는 일단은 먼저 회장님의 권한으로 바꿀 수도 있고 상위기관에서 관여하는게 맞습니다. 우리 자체도 회계를 강화시키려면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보니까 세입하고 세출부분이 똑같아요. 사실은 말이 안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어렵겠지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그리고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회계감사님이 따로 체육회에서 내려와서 마감해주시거든요. 그게 안되면 저희가 결산이 안되거든요.

○ 대의원 : 문기훈 제주장애인배구협회장

저도 한가지 질문 할게요. 2022년 결산서에서 제일 첫장에 수입지출 총괄표에 이한 장이 2022년 총괄표죠? 다름이 아니라 국장님도 계셨겠지만, 사무직직원이 있을 때 자부담에 1,300?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1억3000이요.

○ 대의원 : 문기훈 제주장애인배구협회장

지출보면 1억2900만원에서 65만원, 66만원 돈이 나갔습니다. 과연 사무직 직원이 며칠, 66만원 돈이라고 하면 불과 기간이 한달도 안된 그런 잔액인데 대장배

## 6. 심의안건

공지사항에 보면 작년 8월달부터 사무국 직원 채용공고가 계속 올라왔는데, 긴 시간동안 채용공고가 과연 그 과정을 거쳤는데도 70만원 정도만 들어왔다는 것은 어느정도 공백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회장님, 그게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1월부터 11월까지 직원들이 둘다 있었어요. 저도 있었고 똑같이. 그리고 주임이랑 과장이 그만둔다고 11월 초에 말했어요. 그래서 공고를 미리 올렸죠. 12월 한달의 공백이 있었지만 주임과 과장이 다 채워졌어요. 그리고 올 해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있었지. 우리가 예산 받은 금액에서 이 금액 잔액차이는 어떤거냐면, 인건비 부분은 거의 없고, 과장이 4대보험료를 더 많이 받아요. 4대보험료 부분이 남아서 반납을 한 부분이거든요.

○ 대의원 : 윤종수 대구장애인배구협회장

이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사를 또 같이 하셔야지.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아 그런데,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위에 보시면 2022년 국고보조금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 대의원 : 윤종수 대구장애인배구협회장 여기 보고사항이니까 맞아요.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국고보조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고에서 딱 맞게끔. 정산 안되면

## 6. 심의안건

회계사님 따로 계세요. 10건 정도를 제가 따로 다 받아요. 그래서 직원들 돈이 남거나 안 남거나 저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10원도 없어요. 정산이 제대로 안되면.

### ○ 대의원 : 문기훈 제주장애인배구협회장

사무국직원이 공백이 있었다는 것을 회장님이 말씀 해주셨기 때문에 수익 지출총괄비에서 인건비로만 잡혀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공백기간이 한 달도 안되는 기간이 금액인데.

### ○ 대의원 : 윤종수 대구장애인배구협회장

아니, 저도 지금 대구시 감사를 7년째 하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하게 되면 다시 본것도 다 봐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총괄표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오늘 내용 보면 결산과 승인서라는게 보고사항 아닙니다. 2022년 대장배 가.

### ○ 대의원 : 윤종수 대구장애인배구협회장

감사가 설명을 해줘야하는데

## 6. 심의안건

###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 문화장님 말씀에 답변 해드리자면 1년동안의 주임 하고 과장님이 근무하셨어요. 주임은 회계쪽의 업무를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공석이 된다던가 1년동안의 과정에서 미스가 있어도 나타나지 않고 지나가는 실무행정만 했던 사람이고, 과장은 국고, 자부담, 후원금 등 회계를 전담해서 했는데, 이 친구가 중간에 오류가 생긴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감사 전에 그만두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지겠구나를 느끼고, 본인이 어지른 그대로 놔두고 사정해서 그만두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공백기간이 2-3개월밖에 안되더라도 1년치를 국장이 바로잡아서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결산을 승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료상으로는 과장이 공백상으로는 적게 나오지만, 1년동안의 업무를 다시 처음부터 수정하고 보완하다보니 사무국장이 본인 역할을 못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무이사나 이런 상급자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고 선수위원장님처럼 큰틀을 잡아주면서 총무업무를 디테일 하게 해라.라면서 서포트를 했더라면 매끄럽게 정리됐을것인데, 혼자 경험도 적은데에다가 아까 말씀대로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받은 국고보조 받은 것이 제일 급선무가 되어버린거예요. 그 부분을 수정하다 보니 1년, 몇 개월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계자료가 부실하게 나온 것같고요. 또 행정감사 같은 경우도 전남 회장한테 개인적으로 참석을 해야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개인적인 사업으로 인해 참여를 안하다보니 사무국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고, 대의원들도 마찬가지로요. 지금 오늘 대의원 일정을 잡아놓고 참여를 다 해서 성원이 됐으면 하는데 성원이 안되다보니 일부는 비대면으로 하다보니, 대의원들이 하시

## 6. 심의안건

는 말씀에 대해서는 충고로 받아들이고 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무이사도 입회를 시킨 거예요. 앞으로는 전무이사하에서 이런것들이 대의원들의 자료에 만족할 수 있게끔 충족을 시킬테니까요. 이번 2022년도는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적인 얘기로 사무국장이 부하걸려가지고 본인도 이 대의원총회 끝나면 그만 둔다는 얘기까지 오고 갈 정도로 내부적으로 힘이 듭니다. 그래서 나도 자주 오지는 않지만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요. 뜻하지 않게 시체육회나 다른 가맹단체를 보더라도 회계부분쪽에 리스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젊은 친구들도 스트레스 받아서 안하려고 해요. 특히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의 법령이라던가, 배구의 룰을 알아서 소통이 되어야 하는데 민원은 많이 들어와서 젊은 친구들이 사실 못버텨요. 그래서 마치 내가 선거때도 외람되게 회장님이 장애인배구협회를 나쁘게 말하면 다텔하는가. 왜 그렇게 이직률이 높은가. 에대한 유연비어까지 퍼뜨려서 이번 선거를 하는데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무국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려고 해도 인원 총원이 안되다보니까, 그런데다가 주임도 불과 한달도 안된 주임이 대의원총회에 관한 서류를 다뤄 봤겠습니까. 일은 점차 배워 갈테니까요. 이번에는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우리 회장님이 여기 국장님 포상금을 주세요.

## 6. 심의안건

### ○ 대의원 : 유황규 충남장애인배구협회장

아까 선수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다른건 다 괜찮아요. 그런데 후원금에 관한 것은 조금 보충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입으로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지출로 후원금이 나갔다는 얘기는 조금 말이 안되거든요.

###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후원금을 대회 목적으로 받았는데 예를 들어 페퍼대회나, 협회장기때 후원받아가지고

### ○ 대의원 : 유황규 충남장애인배구협회장

그건 위에보면 페퍼후원금에서 페퍼어울림대회나갔고, 인제대회 후원금은 인제대회때 나간 건 됐어요. 괜찮은데

###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인제대회나, 페퍼나 왜 따로 해뒀냐면 인제에서 지원받은 금액은 인제군에서 준 거라 그렇게 해둔거고, 후원금은 인제군에서 한다고 다른데에서 지원해주신 금액을 후원금으로 해둔거예요. 그래서 이게 똑같이 인제대회에서 후원을 받아서 해둔거예요.

###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그럼 원래는 후원금 세부 사용내역을 참고로 하게 되어있어요.

### ○ 대의원 : 유황규 충남장애인배구협회장 조금만 보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 6. 심의안건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자,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1호 2022년도 사업결과 및 결산(안)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 의사봉 3타 ))

두 번째 심의안건으로

제2호 안건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정관 일부 개정(안) 심의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사회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정관21조(임원) 제 2항 현행 6인 이내의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14인 이상 27인 이내에서 개정(안) 8인 이내의 부회장을 포함한 35이내의 이사를 두려고 함  
개정사유는 이사의 직책 명확화를 위해 임원수 확대하려고 합니다.

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협의 과정에 일부 내용이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회에 일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6. 심의안건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제2호 안건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정관 일부 개정(안)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대의원 : 문기훈 제주장애인배구협회장 이사가 다 찾습니까?

###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이사요? 그래서 저희 원래 30일 인데 체육회에서는 35일 이상 해도 상관없다고 말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래에다가 체육회에서 협의해서 안된다고 하면 저희한테 위임하셔서 줄인다거나

### ○ 대의원 : 문기훈 제주장애인배구협회장

왜냐면 대장체 정관에 이사가 30일 이내 이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대장배는 대장체의 산하조직으로서 상급기관을 규약을 위배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규약엔 있는데요 제가 담당자께 여쭙봤더니

## 6. 심의안건

○ 대의원 : 문기훈 제주장애인배구협회장

그런 담당자의 의견이 아니라 그럼 대장체의 규약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장체는 30일 이내로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35일 하면 어느곳에서 했느냐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저는 어차피 이걸 개정하더라도 대장체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대의원 : 문기훈 제주장애인배구협회장

나중에 선수위원장이 안된다고 하면 다시 대의원회를 소집할 것입니까?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제가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임원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은 운영의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대의원총회에 의결권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협회가 저희한테 승인을 받은 적이 있던가요?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 6. 심의안건

저희가 자료를 21년도에 대의원총회를 하실 때 회장님한테 회장님이 하시는 4년 동안 임원에 대해서는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대의원총회는 우리가 의결권이 있는 것들이예요.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위임을 하셔서 저는

## 6. 심의안건

###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처음에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변 사람으로 보통 하잖아요. 변동이 된다던가 그분들에 대해서까지는 내용이 아닌걸로 알고 있거든요.

###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저희가 변동이나 보선을 하게되면 체육회 승인이 떨어져야 해요. 총회를 해서가 아니라, 여쭙봤더니 승인이 돼야지 예를들어 차기년도에 총회를 하면 보고만 하게 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정관에 대의원의 자격이나 내용 이런 것 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임원의 선임권을 의결하게 되어 있어요.

###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아니, 보선에 좀 더 늘리고자 하는 것은 임원변경, 보직변경이나 보선은 회장님이 하게 되어 있다고 되어있더라고요.

###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이렇게 설명 드릴게요. 1기때 이제 대의원총회에서 모든 임원구성은 회장한테 위임한다. 그때 당시에요. 방금 말하신 선수위원장님 말씀대로 내가 조각할 때 회장이 대의원한테 위임을 받아서 한거예요. 근데 이제 이부분이 왜 잘못됐냐면 이것도 제 가오입니다. 체육회 회장 나오면서 임원구성해서 빨리 보고하라고 하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래서 그때 당시 전무이사였던 장철호전무한테 사실상 위임

## 6. 심의안건

을 해버렸습니다. 위임을 해서 명단을 승인 받았는데 받은 후 이사회할 때 비대면으로 회의할 때 상집으로 계시는 이사들이 한번도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한 임원들을 모시고 4년동안 갈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하게 된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안을 했냐, 이사회에 3회 이상 불참하게 되면 다음연도에 자동으로 정리를 하겠다. 라고 일일이 유선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사직서를 낸 사람이 있고, 일부는 연락이 아예 되지 않는다. 일부는 보직 변경으로 있으면서 이사로 남겠다.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기이사는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이사는 하고싶은데 경기이사는 할 수 없다. 상집이사들을 구성해서 대회를하게되면 상집이사만큼이라도 참여를 해야만이 대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건데 그냥 이사라고 명칭을 달아놓으니까 안하는 거예요.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 유흥으로 일부 참여한 사람들만 서포트를 하며 역할을 하고 있는거예요. 이걸 아니지 않냐, 그 위원들의 그때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심판 보조나 운영요원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실제 대의원에서 임명받아서 간 사람들이 누구냐, 실제론 필드에 없는거예요. 대회의 규정에 맞게 유흥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다 와서 역할을 하는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의원총회 하기전에 임원구성을 전무이사한테 해보라. 그래서 상집이사는 그 시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상집이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 대회가 원활하게 안이루어지게끔 만들어라. 그래야 업무분담이 있어야 강제로라도 참여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선에 추가로 넣어봐라 그렇게 해서 임원들이 보선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있어 제주회장님 말씀대로 기존에 사태를 사임서를 받아서 수정을 받으면 좋을텐데 아까말씀대로 유선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사람을 바로 해지하기가 어려워요. 차후에 사임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추가로 넣어줄 수 있나 보라. 30명 정원 외에. 그러니까 대장체에서 가맹단체에서 협회를 운영하기 편리하게끔 35명이하는 가능하다고 유선상으로 했습니다. 정관에 이렇게 되어 있

## 6. 심의안건

지만, 그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구성해봐라라고 했던 것이 현재 여기 까지 왔던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또 정관에 준해서 하라고 하면 다시 수정해서 30명 범위에서 이루어지게끔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대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력서나 이런 것을 보고 심의를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협회가 누가 왔다갔다, 누구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사회 후에 대의원총회 할 때 서면으로 받던 뭐로 받던 사실 받아야하는게 우리의 권한 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추후에 이렇게까지 온 것에 앞으로 변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대의원 : 윤종수 대구장애인배구협회장 , 유황규 충남장애인배구협회장

이번에는 중앙회장님께서 보선 및 신규임원 선임 결정하고 대의원 총회때 보고하는 걸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 대의원 전원 좋습니다.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보선 임원도 대의원총회 취임을 받아야 하나 안받아야하나 제대로 알아보주세요. (국장에게 하는 말) 중간에 하반기에 대의원총회 한번 더 소집해서 그때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명시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이사가 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규정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의 임명에 관한 대의원총회로 해결이

## 6. 심의안건

###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그게 제일 처음 7대 장애인배구협회 총회 할때 임원 보선을 회장한테 위임한다. 그 의견을 한걸로 4년동안 유효한가. 아니면 새로운 임원 보선이 이루어 졌을 때는 그때그때 대의원총회의 취임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요점을 확인하면 될거예요.

### ○ 대의원 : 문기훈 제주장애인배구협회장

대장배 24조 4항에 보면요, 회장님이 얘기한 대로 21년에 전갑수 이사님이 취임 할때는 전적으로 이사회권을 회장님에게 위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비대면으로 되다보니 어려워서 예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회장과 이사회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하는 것을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 해야한다. 제가 알기로는 이사회를 하면서, 이사회를 통과되면은 오늘 회의자료에 2월 20날 보고 된 내용이 없네요?

###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왜 안했냐면요, 이거 승인을 받고 보고를 하게 되어있더라고요, 대장체에 물어봤더니, 이분들이 승인을 올려서 안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올렸다가 나중에 체육회에서 안된다고 하면 다시 말씀그대로 보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라 저희가 이사회에서 보선을 하고 체육회에서 승인을 올리고 된다 안된다고 결정을 내주면 이사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 대의원 : 문기훈 제주장애인배구협회장

그런데 우리 규약에 보면은 차기 총회보면 알수있는데

###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 6. 심의안건

그러니까 이제 이사회때 취임받은 것을 대장체에 보고해서 승인해주면 이제 대의원총회에 마지막 보고를 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올렸어요 서류?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지금 위촉서류 못받은 사람이 있어서요. 아직.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그러니까 정관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장체에서도 한번씩 변경이 되잖아요. 지금 여기에 맞게 되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정관에는 그런게 없어요. 없으면 정관을 바꿔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정관내용에 없는 것들을 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저희 정관에는 보선해도 된다고, 차기 총회한다고.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우리가 대의원총회 있고, 이사회에서는 이사선임하라는 권한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럴잖아요. 임원에 대한 선임은 대의원이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맞지 않는 거죠. 대장체 보면 이렇게 있을거예요.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22년도 말까지 정관에 문제라던가 23년에 개정할 사항을 보완해서 주시면 정관변경도 저희가 한번 검토 할게요.

## 6. 심의안건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네.

○ 대의원 : 윤종수 대구장애인배구협회장

지금 부회장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부회장 구성?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지금 명단을 저..

○ 대의원 : 문기훈 제주장애인배구협회장

지금 현재 우리 이사회 명단, 대의원총회 명단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시도에 부회장을 두셔가지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제가 끝나고 그부탁 드리고 싶은데, 이영길회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진짜 사실 그래요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도지부에서 참여율이 떨어지면 사실 활기를 얻을 수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심판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심판착출같은 것도 시도에 먼저 의뢰해서 시도회장님들 체면도 세워주고, 각 시도의 심판이사들과도 공감을 갖고 그 대회 할때마다 지역에서 심판 한두명 착출을 받아라, 그게 대한장애인배구협회에서 시도협회를 서로 윈윈 할 수있는 첫 번째 길이다.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대한장애인배구협회에서 이루어지면 안된다. 대한장애인배구협회에서 목적이 생기고 가야할 방향이 생기면 시도협회에서 참여할 수 있게끔 빨리 공지하고 또 거기에 전부 유선통보해서 참여율을 높이고, 강원도회장님 없어서 하는 애긴데, 강원도회장님 같은경우는 만날 때 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것 참 좋은 얘기다. 그럴때마다 필드에서 심판이라던가 선수, 지도자들에게도 그런 말을 해요. 지도자를 하

## 6. 심의안건

더라도 각 시도회장님들과 의논을 해서 그쪽 지역에 선수 에로사항이 원가를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에 여기와서 회의 할 때에도 그부분들을 대구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경남에 어떤문제가있습니다. 충남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현황이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선수위원장에게도 두세차례 말했듯이, 선수들 서울이고 제주도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부분에 있어서 필드에 가서 선수위원장이니까 출장비라도 지원할테니까 선수를 만나서 개개인의 에로사항이라던가 현황파악을 해서 공지해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해서. 다들 이렇게 장애인배구협회라고 해서 상벌하고 하면 다 돌아갈건데 본인들 본업이 있다보니, 나도 또 장애인배구협회에서 이도저도 못하면서 갔다와라 명령할 수는없잖아요. 방관으로 냅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대한장애인배구협회에서 에로사항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상당히 많다. 그리고 참여율이 가장 중요하단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물론 내가 죄송스러운 것은 수도권에 사무실이 있어도 지방에서 올라가려면 똑같은 여건이고 그래서 내가 사무국장에게도 그랬어요. 다른지역에서 멀리 오신 분들에게는 숙식해준다고 하면 다 해주고 거기에 관련된 교통비 정도는 챙겨서 해줘라. 회장님들께 속된말로 일당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것은 예의를 갖춰서 하자.라고 했음에도불구하고 이 날짜도 굉장히 힘들게 잡은 것 같아요. 사실 나는 여기도 중요하지만 또 내가 맡았던 업무도 있기 때문에 안하게 되면 3월달부터 우리가 힘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조금하게 하다보니까 대의원들이 지적인 것처럼 미스가 좀 있던 것 같아요. 내 시간대에 자꾸 사무국에 짧은 시간에 빨리 결정을 내려 라고 했더니 오늘 자리를 만든 것 같으니까, 내가 들어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 대의원 : 문기훈 제주장애인배구협회장

개정안 30,35명 이런 것은 나중에 서면상이라던가 해서 바꾸면

## 6. 심의안건

○ 사회자 : 강수민 사무국장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 네 네, 동의와 제청이 있었으므로 제2호 안건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정관 일부 개정(안) 심의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셋 번째 심의안건으로  
제3호 안건 감사 선임(안) 심의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사회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정관 제22조(임원의 임기)1항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연임(연임횟수 산정 시 가맹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정관 제24조(임원선임) 1항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6. 심의안건

###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감사를 선임하는데 보통 감사는 회장님의 권한이(다른 대의원과 말이 섞여 들리지 않음)

### ○ 대의원 : 문기훈 제주장애인배구협회장

24조 3항에 보면 총회에서 선임하되, 대의원중에서 한사람,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 대의원 : 윤종수 대구장애인배구협회장

구체적으로 감사는 위임이 안되거든요.(다른 대의원과 말이 섞여 들리지 않음)

###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제가 광주체육회를 보니까 감사는 회장 임상으로 정리 되어 있던데요.

(다른 의원들이 함께 말해서 들리지 않음)

### ○ 대의원 : 장영희 광주장애인배구협회장

회계사를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심의해서 두명을 뽑는게

###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그러니까, 행정감사는 대의원 중에서 한분을 선택해야 하는데 행정감사를 대의원에서 추천해야 한다는 그 말입니까?

(사회자 및 다른 대의원의 말과 섞여 들리지 않음)

## 6. 심의안건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저희 임원 24조 읽은 것중에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 대의원 : 장영희 광주장애인배구협회장

위임을 안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네

(사회자 및 다른 대의원의 말과 섞여 들리지 않음)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그러면요, 여기서 뽑아도 상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누구를 뽑더라도 아무 상관 없어요 진짜.

○ 대의원 : 장영희 광주장애인배구협회장

그럼 대의원 중에 한 분 하시면 외부감사, 회계는 없는데?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그러니까요.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추천을 받는게 원래는 맞는 것 같고, 회계를 2년동안 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임이 가능 하니까. 연임하는 것으로 해야지.

## 6. 심의안건

○ 대의원 : 문기훈 제주장애인배구협회장 심혁이라고 하는 분이 공인회계사?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네, 공인회계사입니다.

○ 대의원 : 문기훈 제주장애인배구협회장

그럼 이분에게 다시한번 부탁해서 연임할 수 있는 그런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왜냐, 공인회계사 자격요건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그럼 외부감사는 그러면 네.(다른 대의원의 말과 섞여 들리지 않음)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감사 2인이 필요한 부분은 회계를 두는 것이고 하나는 사업에 대한 평가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 줘야지 조직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회계감사 2명으로 두지 않고, 한명은 회계전문가로 두고, 한명은 사업전문가로 두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의원총회에서 회장님이 경험도 많으시고 이분들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되는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그러니까 여기서 위임을 해줬으면 전남 회장이 연임으로 가게끔 됐는데 여기서 방금 위임을 안했기 때문에 여기서 뽑으셔도 아무상관 없다니까요. 그러면 되겠어요.

## 6. 심의안건

○ 대의원 : 윤종수 대구장애인배구협회장

전남 회장님이 감사했어요? 그분이 저 자격을 갖춘 분이세요?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그건 아닙니다. 이분은 전남 장애인배구협회, 대의원 중 한분이에요. 행정감사.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새로 뽑으니까 저는 여기서 추천할게요. 배구협회에서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충남회장님을 추천드립니다.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네, 서슴없이 해주세요.

○ 대의원 : 유황규 충남장애인배구협회장 제주회장님 어떠세요.

○ 대의원 : 문기훈 제주장애인배구협회장 제주에서 올라오기 너무 힘듭니다.

○ 대의원 : 이영길 경남장애인배구협회장 가능하면 광주 분이 좋지요.



## 6. 심의안건

###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아니요. 송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래도 배구협회에 사무국에 미흡한 부분을 찾아줄 수 있어야 하고 그럴지 않습니까? 해가 넘어갈수록 좌식배구에 대의원이 됐던, 이사회가 됐던 모범적으로 조금은 반박자 리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리더들이 나서 줘야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혀 개의치 않을테니까요.

###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감사부분에서 아쉬웠던게 뭐냐면, 회계에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에대한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게 빠져버리니까 사실은 사업적인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저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지적이신데요. 전남회장을 폄하자는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행정감사, 대의원총회가 있으니까 본인이 전남이니까 오셔야 하는 것이 맞거든요. 솔직하게. 근데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 ○ 대의원 : 장영희 광주장애인배구협회장 그럼 제가 해보겠습니다.

(박수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음)

다들 거리가 멀어서 힘드시니까요.

## 6. 심의안건

###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제3호 안건 감사 선임(안) 심의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감사는 광주 장영희 회장님입니다. 그리고 회계 외부 감사는 심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제3호 안건 감사 선임(안) 심의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이상으로 안건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거듭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대한장애인배구협회 2023년 정기총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 8. 기타토의

○ 대의원 : 문기훈 제주장애인배구협회장

기타토의 안하나요?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기타 토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 : 윤종수 대구장애인배구협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과열돼서 선수 수급이 잘 안 돼요. 그런문제를 해결하는 정리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각 시도의 체육대회 할 때 지원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여유가 되겠죠? 그것을 좀 더 활성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안건을 드립니다.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예민한 부분인데, 그 사람들 보다 잘해서 만약 국가대표에 선발 되었을 때 배구협회에서 회장님이 (윤종수 회장님과 말이 겹침) 하는 시간 동안. 사실은 편하실대로 하잖아요? 저희가 제대로 된 선수등록을 할 때도 저희는 비장애인까지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대회를 생활체육대회를 많이 해요.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근데 전문대회를 그렇게 풀어버리면 문제가 뭐가 되냐면 나중에 선수들이 굉장히 혼동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생활체육 대회로 많이 바뀐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아까 말씀 드렸던 전문대회 뛰는 선수 몇분, 그리고 비장애인도 같이 참여해서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 8. 기타토의

### ○ 대의원 : 윤종수 대구장애인배구협회장

잠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는 \*\*\*선수라고 있는데 누가봐도 장애인인데 신경이 살아있다고 장애인 등급을 안주는 거예요.

### ○ 대의원 : 문기훈 제주장애인배구협회장

2017년도부터 배구협회 이사를 하면서 회장도 하고 있는데 3년 전 회장님 때도 등록 문제로 상당히 심각했었습니다. 선수 수급 문제에서요. 대한장애인배구협회에서 고집하고 있는 건 다 장애인인데도 국제 대회로 인해 국제 등급 기준에 맞추고 있다 보니 기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됐었냐 하면 ‘국제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집할 수는 없다. 국내 대회는 등급수준을 좀 낮추자’

###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이완을 시키자는 말 인가요?

### ○ 대의원 : 문기훈 제주장애인배구협회장

네 이완을 시켜서요. 선수 위원장님이 얘기 하셨듯이 장애인 등록증만 가지고 있어도 선수활동을 할 수 있게 체계를 만들자고 했는데도 잘 안됐습니다.

###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등급문제가 굉장히 예민한데 선수 위원장 말씀대로 전세계 추세를 따르자니 우리가 너무 수요가 부족하고 수요를 맞추자니 우리가 미흡합니다. 제 생각은 국제대회는 국제대회 등급분류 그대로 따라가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제 대회를 출전하면 되는 것이고 국내대회는 좀 등급을 완화시켜서 대의원총회 때 추진하면 될 것 같아요.

## 8. 기타토의

### ○ 대의원 : 이영길 경남장애인배구협회장

그런데 문제는 우리 배구협회만 적용되나요? 다른 종목에서도 적용되나요?

배구만 그래요. 내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는데 배구만 어떻게 등급이 있냐고요

###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만약에 전국체전을 하는데 그게 기술적으로요 그러면 그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국내대회 등급을 완화시켰습니다. 근데 일부에서 다른 팀에서 뛰고 있었던 선수에게 국가대표를 할 수 있는 희망을 심어줘버렸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그것 때문에 선수들이 따라와 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는 주되 말씀하셨던 대로 대회 자체가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거기어느정도.

###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그니깐 전문체육을 했을 때는 국제대회 등급에 맞게끔 그렇게 가고 생활체육을 할 때는 등급을 좀 완화시켜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끔 이 정도라도 개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과 말이 섞여 들리지 않음.)

### ○ 위원장 : 유황규 충남장애인배구협회장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체육이라는게 우리가 했던 어울림 대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전문대회를 생활체육대회로 할 것 인지에 대해...

### ○ 대의원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전문체육대회 라는 것은 학생체전, 전국체전을 전문대회라 봐야 할 것 같고요 회장 배라던가 이런 대회를 생활체육대회로 봤으면 될 거 같고 각 사군구 협회에서 하는

## 8. 기타토의

전통적으로 해오던 정읍대회 해남대회 같은 대회를 생활체육대회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장애인배구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회를 전문대회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 ○ 대의원 : 이영길 경남장애인배구협회장

회장님 말씀에 보태면 가끔 골프를 칠 때 등급 분류를 보면 전문선수로 등록할지 생활체육으로 등록할지 구분되어 있습니다. F3까지 대회를 하는데 전문선수가 대회 나오고 국가적인 대회는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 ‘머드팩 축제’ 한다고 하면은 ‘어울림 대회’ 장애인과 비장애인 어울려서 하면 될 거 같습니다.

### ○ 위원장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그러니깐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실시하는 대회는 전문대회로 봐야 할 것 같고 각 시도협회에서 실시하는 대회는 생활체육대회로 봐서 등급분류를 완화하여 참여해서 즐기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핸드폰 진동소리와 겹쳐 들리지 않음)

### ○ 대의원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그니깐 전무님과 심판측과 큰 요강을 만들어서 요강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기타사항의 두 번째, 각 시도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싶은 분이나 부회장으로 추천해 주실 분이 있으면 해주세요. 사무국에 꼭 추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8. 기타토의

기타사항의 세 번째, 시도 체육회의 지원부분은 대장체에서 지원이 얼마나 내려오나요?  
저희들이 3,000만원을 지원을 받으면 각 시도에 신청 받아서 줘야 하는데 올해 그것을  
다 못쓰고 다른 협회에다 1,500만원을 줬어요. 작년에도 1,200만원을 줘버렸고.

○ 사회자 : 강수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장

저희가 지원받는 곳은 전문체육부에서 받는거라 생활체육에서 받으려면  
리그전이나 이런 대회에서 지원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선수들이 떠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 대의원 : 장영희 광주장애인배구협회

현재 각 사·도에 있는 사무국장들 있잖습니까 임금이 그렇게 작는데 조금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대의원 : 전갑수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지금 현재 광주시체육회에도 전무이사들이 장애인배구협회의 사무국장 역할을  
하는데 20만원씩 임금을 받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어야  
지급을 해주는데 정해진 금액에 있어 예산이 편성이 되버립니다.

○ 대의원 : 문기훈 제주장애인배구협회장

기타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게 있는데 첫 번째로 시도에서 개최되는 대회는

## 8. 기타토의

참가신청을 받는데 참가하는 팀이 작년 폐퍼배구대회에서 제주에서 2개팀이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1팀은 제주도협회에서도 모르는 유명팀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자료 6쪽에 보면 각 소속 시도지부의 승인을 마친 팀이라는 조항이 있으면 되는데 어울림 대회가 있으니 시도 협회는 몰라도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울림 대회든 뭐든 간에 장애인배구인데도 각 시도 협회장들은 모르는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 현상 때문에 차후에 각 종 시도에서 대회가 개최될 때 참가신청서에 승인이나 직인 등을 찍어서 접수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참가요강을 공고 낼 때 한 줄만 집어 넣으면 됩니다.

###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연초에 선수등록을 할 때 처음에 한번 승인을 맡아버리면 불편하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선수들이 명단에 들어가 있으니 제일 처음에 등록하지 않은 선수들은 생활체육대회도 못 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비장애인도 등록을 다 해야 합니다.

### ○ 대의원 : 이정훈 심판위원장

심판 선수 지도자 관리 규정에 보면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장애인 선수들도 관리 차원에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 8. 기타토의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정읍에서는 선수가 등록을 해서 나가는데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 항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 대의원 : 윤종수 대구장애인배구협회장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서로가 어울리는 대한장애인배구협회의 장이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 대의원 : 기타 여러명 회장들 계속 논의 (알아들을 수 없음)

○ 대의원 : 문기훈 제주장애인배구협회장

2월 26일 15시부터 17시까지 국가대표 선수가 선발 됐는데 오늘 공지사항으로 올렸던데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승인이 난겁니까??

○ 대의원 : 기타 여러명 회장들 계속 논의 (알아들을 수 없음)

○ 대의원 : 문기훈 제주장애인배구협회장

내가 왜 그걸 얘기 하냐면 \*\*\*선수가 합격한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대표 선수 선발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도 협회의 승인도 없었습니다. 어떤 선수가 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가대표를 나갔어도 시도 협회장들을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간지 안나간지도 모릅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 8. 기타토의

###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서울장애인배구협회에 방문해 선수들도 만나 봤고 제주장애인배구협회에 방문해 선수들과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선수위원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하지만 선수들이 힘들어 하는 것 같아 같습니다. 협회에 바라고 싶은게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회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대회를 끌어가지만 내부적으로 밑으로 봤을 때는 지금 팀들 다 해체될 사항입니다.

여기에 심각성을 잘 모르십니다. 선수들이 없는 협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잠깐 협회장들에게도 말씀 드렸지만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선수들이 어떤 문제점을 회장들이 들어주지 않았고 선수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선수들에게 징계를 주면 되는 것이고 도협회장들이 잘못을 했으면 이런 일들이 생기면 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위원회들이 조사를 하면 되고 본인들이 역할들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제주협회도 잘 하시지만 여자 2등팀이 없어졌습니다. 팀 하나 만드려면 얼마나 힘들지 아십니까?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근데 이게 쉽게쉽게 없어지는 과정이 선수들 잘못이나 협회장 잘못이 아니라 협회에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도 선수위원장을 그만두려고 고민중입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이 저를 믿지 않습니다. 협회에서 안움직인다 회장님께 다 말씀드렸지만 움직이는게 별로 없습니다. 움직이는게 없다고 하면서 저에게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장애인배구협회에 올라갔을 때 선수들이 저에게 뭐하러 왔냐며 화를 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줬었다. 다름이 아니라 상벌 위원회가 있으면 역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시끄러웠을 때 하는 것 보다는 상황들이 안좋다 보니 작년 전국체전은 최악이었습니다. 이렇게 참가팀이

## 8. 기타토의

적었던 적은 없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진짜 평가하고 문제점을 찾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전무이사님이 하는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은 찾아가세요. 제주도 심각합니다. 2박3일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왔는데 참담해요. 듣는 내용도 또 틀립니다. 제가 말하는 것보단 (대의원 장영희 회장, 이영길 회장, 문기훈 회장, 송현 선수위원장 말이 섞여서 들리지 않음)

○ 대의원 : 이영길 경남장애인배구협회장, 문기훈 제주장애인배구협회장 대한장애인배구협회 김동근 부회장 이야기하다.

대의원 문기훈 제주협회장님께서 제주도 문제점과 김동근 부회장님과 관한 얘기를 나눔.

○ 대의원 : 송현 선수위원장

저는 선수생활 35년 했습니다. 제가 가장 놀라운건 임원들이나 시도 협회장이 되었을 때 선수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대표 감독 이야기 중...

(국가대표 감독에 대한 대의원들 논의 후 기타 사항 종료)